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15권 제1호(2011년 4월)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11 ; 15(1) : 17-27

대한예방한의학회지 게재논문의 경향성에 대한 연구
— 창간호(1997년)로부터 2010년까지 —

박 해 모*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he Trend of Published Articles to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 From 1997 to 2010 —

Haemo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and to suggest future perspective for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research.

Method : The contents of 344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was reviewed from its beginning year 1997 to year 2010.

Result : The number of articles was increased as times go on. An analysis of the research design showed, experimental research (*in vivo or in vitro*) was 36.9%, survey research was 26.5%, review was 20.1%. In the major classifications of topics published, health management 28.5%, oriental medicine effectiveness 25.3%, herbal safety and toxicity 13.1%, and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medicine 9.0% respectively.

Conclusion : There has been a lack of health preservation(Yang-saeng) topic, epidemiology and health statistics topic. Further research need qualitative study and each subjects of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Key words : research trends, published articles, review, research topic, *Korean Journal of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 접수 : 2011년 4월 5일 · 수정접수 : 2011년 4월 25일 · 채택 : 2011년 4월 26일
* 교신저자 : 박해모.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 033-738-7508, 팩스 : 033-730-0652, 전자우편 : haemopark@sangji.ac.kr

I. 서 론

대한예방한의학회지는 1997년 12월에 창간되어 1997년, 1998년에는 1회씩 발간되다가 1999년 3권부터 2회씩 발간되었고, 2008년 12권부터 3회로 증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에 선정되고, 2010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등록되어 그간 노력의 결실을 보았다. 대한예방한의학회는 1997년 한의학의 대중화와 한방예방의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1]되어 사업의 일환으로 학회지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술 및 연구활동을 펼쳐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그중에서 특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은 학회지의 수준과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회활동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대한예방한의학회지의 발전에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미 학회지의 연구동향파악에 대한 시도는 국내 보건 및 의학관련 학회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한의학 관련학회지에서도 몇몇의 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의학 및 보건관련 학회지에 대한 연구로는 예방의학회지의 연구동향,[2]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의 논문경향에 대한 분석,[3] 대한 류마티스 건강학회지 논문 분석[4] 등이 있었고, 한의학 관련 학회지에서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의 투고논문을 분석한 연구결과[5]와, 동의생리병리학회지의 3년간 게재된 논문의 통계기법에 대한 연구,[6] 3년간 원전학회 논문의 경향성 연구[7]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예방한의학회지를 창간호(1997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된 전체 논문들을 여러 측면에서 분류,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예방한의학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여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향후 연구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예방한의학회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발행된 창간호(1권 1호)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10년 12월호(14권 3호)까지 게재된 논문 346편 중 게재후 철회, 취소된 논문 2편을 제외하고 총 34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방법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홈페이지(www.prehan.com)를 검색하였고, 홈페이지에 없는 자료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기로 검색하였다.

2. 조사변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주요 변수로 설정한 항목은 논문의 발간연도, 권호, 저자수, 연구소속기관수, 연구방법, 논문의 대주제와 소주제, 사용언어를 선정하였다.

발간연도와 권호수 및 저자수, 연구소속기관수는 실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예방한의학회지의 분류와 선행연구[2-7]의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실험, 설문, 한의학원전 및 문헌 고찰, 역학 및 임상연구, 임상 및 증례보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논문의 대주제는 현재 양・한방 예방의학교재[8, 9]를 기준으로 기초이론(총론 및 건강의 개념), 역학 및 통계, 보건의료관리, 환경 및 산업보건, 한약 안전성과 독성학, 양생학의 분야로 분류하고, 이외에 한의학의 치료효능에 대한 분야와 기타 분야를 추가하여 총 8개 분야로 나누었다. 논문의 소주제는 주제어와 논문내용, 연구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역시 교재의

소목차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양·한방예방의학 분야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편의상 양방교재에 준하여 분류하였고, 교재에 없는 분야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분류되는 경우는 따로 소주제를 설정하여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PASW ver.18[10]을 이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분포와 평균,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논문수의 변화

1997년 창간호 이후 14년간 대한예방한의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는 총 14권 총 29호였다. 게재된 논문은 총 346편이었으며, 이중 게재 후 취소 및 철회된 논문은 2편으로 총 논문편수는 344편이었다. 연간 게재된 논문수는 학회지 발행 초기인 1997, 1998년이 15편으로 가장 낮았고, 2회로 증간된 1999년부터 20~30편의 논문이 매년 발행되었으며, 2008년 3회 증간으로 30~40편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된 연도는 2008년으로 45편이었다(표 1).

논문의 1호당 평균 논문편수는 11.9편이었다. 2008년 발행횟수가 연간 3회로 증가하면서 게재논문수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록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방한의학회지의 연도별 호당 논문편수는 2005년 평균 9.0편이 가장 낮았고, 2000년 15.5편이 가장 높았다(그림 1).

2. 연구저자수 및 연구기관수

게재 논문의 저자수는 3인 저자가 83편 24.1%로 가장 많았고, 2인 저자가 78편 22.7%, 1인

표 1. 연도별 대한예방한의학회지 게재 논문수

연도(yr)	권수(권)	논문수(편)	%	호당 논문수(편)		
				1호	2호	3호
1997	1권	15	4.4	15		
1998	2권	15	4.4	15		
1999	3권	21	6.1	11	10	
2000	4권	31	9.0	12	19	
2001	5권	20	5.8	10	10	
2002	6권	23	6.7	10	13	
2003	7권	23	6.7	12	11	
2004	8권	26	7.6	12	14	
2005	9권	18	5.2	10	8	
2006	10권	21	6.1	10	11	
2007	11권	24	7.0	12	12	
2008	12권	45	13.1	11	16	18
2009	13권	31	9.0	10	11	10
2010	14권	31	9.0	10	11	10
합계		3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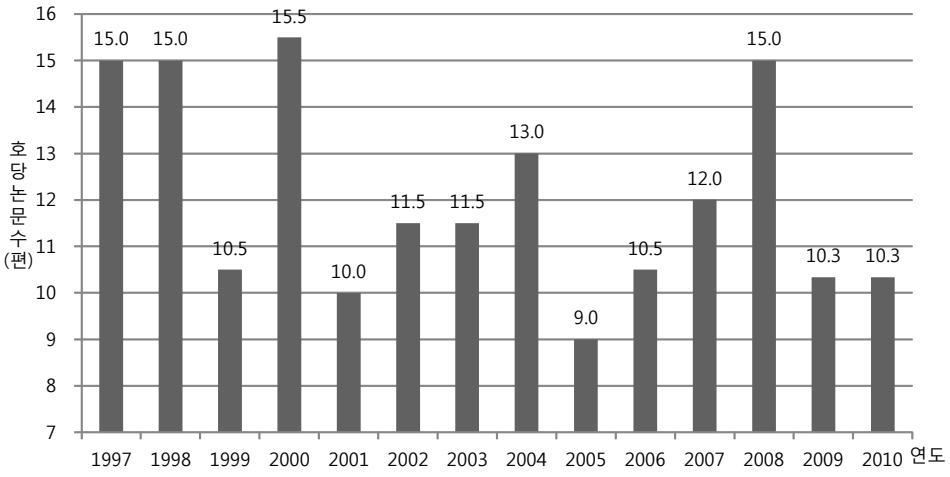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예방한의학회지 호당 논문편수

저자가 41편 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15명의 저자에 까지 넓은 분포를 보였다.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의 수는 1기관에서 8기관의 범위를 보였으며, 가장 많은 게재된 논문편수는 2기관이 126편 36.6%로 가장 높았고, 1기관이 35.8%로 그 다음이었으며, 3기관은 58편 16.9%로 나타났다(그림 2).

창간호 이후의 저자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창간호와 1998년 2권의 1인 저자 비율은 27%였고, 연도별 추이를 관찰해 보면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2010년의 경우 1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저자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는데, 1997년에 2~3인 저자수의 논문편수는 67%였다가 역시 약간의 변동은 보이지만 2010년에 4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4인 이상의 저자 논문은 초기에 7%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 45%로 증가하는 경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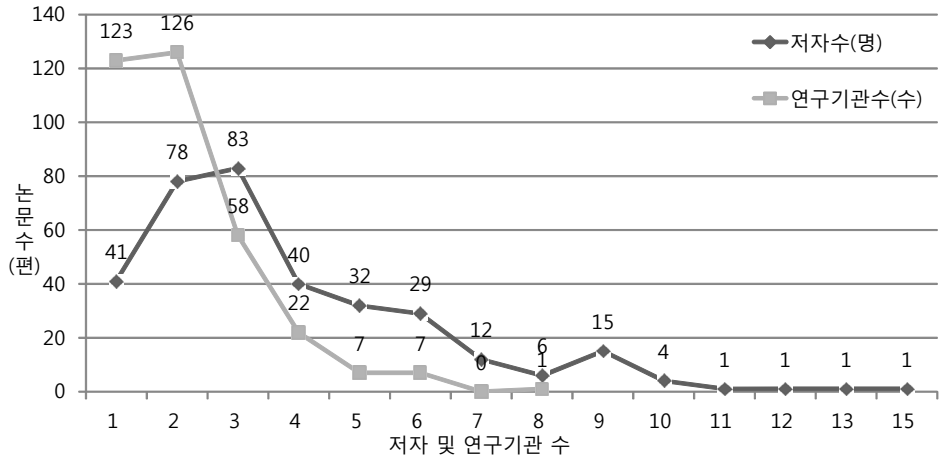

그림 2. 예방한의학회지 게재 논문의 저자수 및 연구기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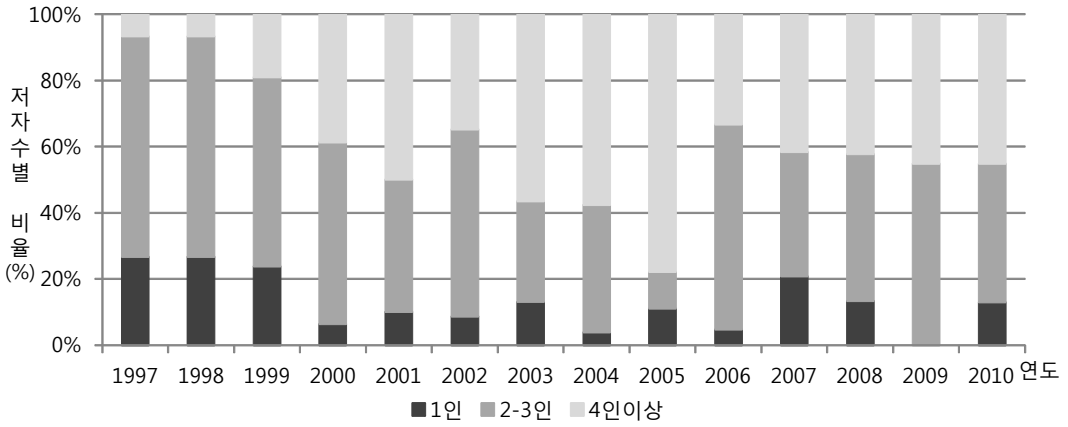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저자수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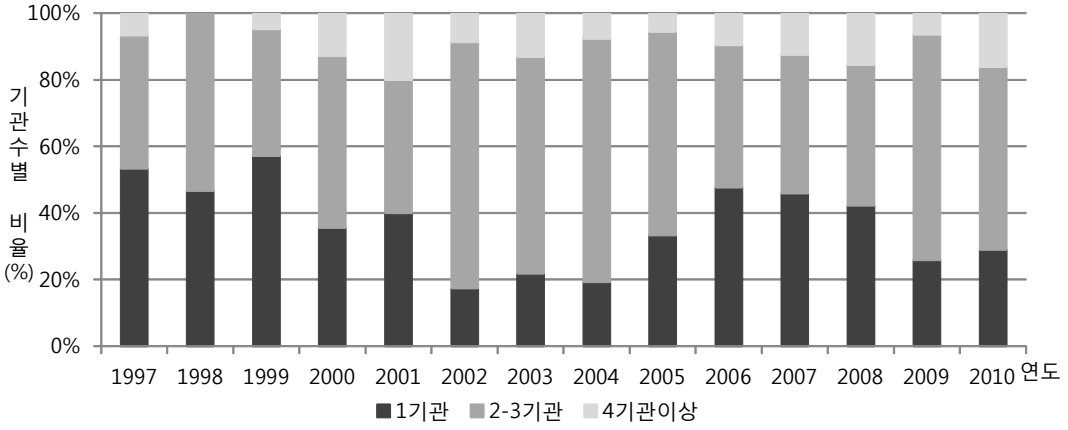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소속기관수 비율의 변화

나타냈다(그림 3).

연도에 따른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수도 역시 논문 저자수와 비슷한 변화를 보여 창간호 53%였던 1기관의 게재논문은 2010년에는 29%로 대체로 낮아지고, 2~3기관의 논문 편수가 40%에서 55%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4기관 이상의 논문 편수는 창간호 7%에서 16%로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4).

3. 논문연구방법의 특성

예방한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사용된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동물실험 또는 세포실험을 포함하는 실험논문이 127편 36.9%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설문을 통해 취합된 자료를 분석한 논문이 91편 26.5%로 나타났으며, 원전고찰 또는 문헌고찰을 사용한 논문이 69편 20.1%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대조군 연구 또는 환자군연구, 메타분석, 전후비교 등의 방법을 사용한 역학 및 임상연구가 31편 9.0%로 나타났으며, 임상 및 증례보고는 3편 0.9%로 가장 낮았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자료화된 병원경영자료 분석 또는 건강보험자료분석 등을 사용한 논문이 23편 6.7%로 나타났다(표 3).

표 2. 연도별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단위 : 논문수(%)

	실험	설문	문헌 및 원전고찰	역학 및 임상연구	임상 및 증례보고	기타*	총계
1997	4(26.7)	3(20.0)	6(40.0)	0(0.0)	1(6.7)	1(6.7)	15(100.0)
1998	8(53.3)	2(13.3)	3(20.0)	0(0.0)	0(0.0)	2(13.3)	15(100.0)
1999	6(28.6)	6(28.6)	5(23.8)	4(19.0)	0(0.0)	0(0.0)	21(100.0)
2000	14(45.2)	4(12.9)	7(22.6)	3(9.7)	0(0.0)	3(9.7)	31(100.0)
2001	9(45.0)	5(25.0)	5(25.0)	1(5.0)	0(0.0)	0(0.0)	20(100.0)
2002	9(39.1)	8(34.8)	2(8.7)	2(8.7)	1(4.3)	1(4.3)	23(100.0)
2003	12(52.2)	7(30.4)	3(13.0)	1(4.3)	0(0.0)	0(0.0)	23(100.0)
2004	10(38.5)	5(19.2)	5(19.2)	3(11.5)	0(0.0)	3(11.5)	26(100.0)
2005	7(38.9)	8(44.4)	2(11.1)	0(0.0)	0(0.0)	1(5.6)	18(100.0)
2006	10(47.6)	5(23.8)	2(9.5)	1(4.8)	0(0.0)	3(14.3)	21(100.0)
2007	5(20.8)	8(33.3)	6(25.0)	3(12.5)	0(0.0)	2(8.3)	24(100.0)
2008	15(33.3)	10(22.2)	11(24.4)	5(11.1)	0(0.0)	4(8.9)	45(100.0)
2009	11(35.5)	11(35.5)	3(9.7)	5(16.1)	0(0.0)	1(3.2)	31(100.0)
2010	7(22.6)	9(29.0)	9(29.0)	3(9.7)	1(3.2)	2(6.5)	31(100.0)
총계	127(36.9)	91(26.5)	69(20.1)	31(9.0)	3(0.9)	23(6.7)	344(100.0)

* 기타 : 병원경영자료, 건강보험자료분석 등

표 3. 연도별 대주제에 따른 분류 단위 : 논문수(%)

연도	총론 및 건강개념	역학 및 통계	보건의료 관리	환경 및 산업보건	한약 안전성과 독성학	양생	한의약 치료효능	기타	총계
1997	0(0.0)	2(13.3)	4(26.7)	1(6.7)	1(6.7)	4(26.7)	3(20.0)	0(0.0)	15(100.0)
1998	0(0.0)	0(0.0)	6(40.0)	3(20.0)	2(13.3)	0(0.0)	4(26.7)	0(0.0)	15(100.0)
1999	0(0.0)	1(4.8)	4(19.0)	3(14.3)	4(19.0)	1(4.8)	5(23.8)	3(14.3)	21(100.0)
2000	0(0.0)	1(3.2)	6(19.4)	5(16.1)	7(22.6)	2(6.5)	8(25.8)	2(6.5)	31(100.0)
2001	0(0.0)	1(5.0)	2(10.0)	4(20.0)	3(15.0)	3(15.0)	7(35.0)	0(0.0)	20(100.0)
2002	0(0.0)	0(0.0)	8(34.8)	1(4.3)	3(13.0)	1(4.3)	8(34.8)	2(8.7)	23(100.0)
2003	0(0.0)	0(0.0)	3(13.0)	4(17.4)	3(13.0)	1(4.3)	9(39.1)	3(13.0)	23(100.0)
2004	0(0.0)	0(0.0)	6(23.1)	3(11.5)	3(11.5)	3(11.5)	8(30.8)	3(11.5)	26(100.0)
2005	0(0.0)	1(5.6)	9(50.0)	0(0.0)	3(16.7)	0(0.0)	3(16.7)	2(11.1)	18(100.0)
2006	1(4.8)	1(4.8)	8(38.1)	0(0.0)	2(9.5)	1(4.8)	7(33.3)	1(4.8)	21(100.0)
2007	0(0.0)	2(8.3)	9(37.5)	2(8.3)	1(4.2)	2(8.3)	3(12.5)	5(20.8)	24(100.0)
2008	0(0.0)	5(11.1)	12(26.7)	1(2.2)	8(17.8)	4(8.9)	9(20.0)	6(13.3)	45(100.0)
2009	0(0.0)	1(3.2)	9(29.0)	4(12.9)	1(3.2)	1(3.2)	10(32.3)	5(16.1)	31(100.0)
2010	1(3.2)	2(6.5)	12(38.7)	1(3.2)	4(12.9)	2(6.5)	3(9.7)	6(19.4)	31(100.0)
총계	2(0.6)	17(4.9)	98(28.5)	32(9.3)	45(13.1)	25(7.3)	87(25.3)	38(11.0)	344(100.0)

연구방법에 따른 연도별 변화추이는 변화가 심하여 대략적인 파악이 어려웠으나, 전체적인 비율을 관찰했을 때 실험논문이 가장 높은 비율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4. 논문주제에 따른 분류

양·한방 예방의학 교재의 분류에 따라 대한예방한의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를 크게 분류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게재된 논문 주제는 보건의료관리로서 98편이 게재되었고 전체의 28.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의약치료효능에 대한 주제의 논문이 87편 25.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한약 안전성과 독성학에 대한 논문이 45편 13.1%, 환경 및 산업보건에 대한 주제의 논문은 32편 9.3%로 그 다음을 이었다.

비교적 적은 수로 게재된 논문주제로는 양생(25편 7.3%), 역학 및 통계(17편 4.9%), 총론(2편 0.6%)로 나타났으며, 교재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기타의 경우는 38편 11.0%로 나타났다(표 4).

대주제에 따른 분류 이후에 다시 양·한방 예방의학교재에 근거하여 소주제에 따른 분류를 하였을 때 각 대주제별로 소주제를 정리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다루어진 소주제로는 산업보건 및 직업성 질환(22편 6.2%)였으며, 항산화 및 항노화(20편 5.8%)였으며, 의료이용(18편 5.2%)순으로 나타났다.

총론의 건강개념에 해당하는 소주제는 매우 적어 2편으로 나타났고, 역학 및 통계에서는 주요 만성질환 또는 생활습관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7편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관리주제에 있어서는 의료이용이 18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한방의료이용실태 또는 인식 등의 설문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장에 대한 내용이 15편,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이 12편, 노인 보건 11편, 건강증진사업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논문이 8편으로 나타나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환경 및 산업보건분야에서는 주로 사업장 등의 직업종사자의 건강수준 또는 양생수준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중금속에 대한 내용이 5편, 농약중독에 대한 논문이 2편으로 조사되었다.

한약안전성과 독성학에서는 한약재 중금속 오염에 대한 주제가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생식독성, 장기독성 등에 대한 주제가 그 다음을 이었다.

양생학 분야에서는 양생이론, 기공양생 등의 주제가 게재되었고, 한의약치료효능의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단일 한약재 또는 한약처방 등이 만성질환, 면역, 항노화, 항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논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87편의 논문중 80편이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타분야에서는 대체의학, 의료윤리, 진단기기, 진단방법 등 다양한 내용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5. 논문사용언어

논문에 사용된 언어에 대한 분류에서는 국문사용이 96.5%로 가장 많았고, 영문은 11편 3.2%로 나타났으며, 중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표 6).

Ⅳ. 고 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년간 예방한의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 2회 증간과 2008년 3회 증간 및 학진등재후보지 등록 등의 영향으로 연간 게재논문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호당 논문

표 4. 소주제에 따른 분류

대주제	소주제	논문수(%)
총론, 건강개념	건강과 건강허약, 질병	2(0.6)
역학 및 통계	주요 만성질환(생활습관병)	7(2.0)
	역학 및 연구방법론	5(1.5)
	정확성과 신뢰도	3(0.9)
	기타(질병사인분류 등)	2(0.3)
보건의료관리	의료이용	18(5.2)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	15(4.4)
	법제도, 정책	12(3.5)
	노인보건	11(3.2)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8(2.3)
	양한방협진	7(2.0)
	의료자원 및 인력	6(1.7)
	건강관련행태	4(1.2)
	기타(병원경영, 보건경제, 국제보건, 정신보건 등)	17(4.9)
환경 및 산업보건	산업보건 및 직업성질환	22(6.4)
	중금속	5(1.5)
	농약	2(0.6)
	기타(오존, 유기용제, 이산화황)	3(0.9)
한약안전성과 독성학	한약재 중금속 오염	12(3.5)
	생식독성	9(2.6)
	장기독성	8(2.3)
	독성학이론	5(1.5)
	한약재 표준화	3(0.9)
	한약재 품질관리	2(0.6)
	기타 (급성독성, 약물대사 등)	6(1.7)
양생학	양생이론	8(2.3)
	기공 및 도인양생	8(2.3)
	정신양생	4(1.2)
	기타 (음식, 체질, 환경양생 등)	5(1.5)
한의약 치료효능	항산화 및 항노화	20(5.8)
	항암	12(3.5)
	고지혈증	12(3.5)
	골다공증	9(2.6)
	면역	8(2.3)
	만성질환(뇌혈관질환, 당뇨, 심혈관질환 등)	16(4.7)
	기타 (성장, 스트레스, 침 등)	10(2.9)
기타	대체의학	7(2.0)
	기타(의료윤리, 기초의학연구, 진단기기 등)	31(9.0)
총계		344(100.0)

표 5. 사용언어에 따른 분류 단위 : 논문편수(%)

연도	영문	중문	국문	총계
1997	0(0.0)	0(0.0)	15(100.0)	15(100.0)
1998	2(13.3)	0(0.0)	13(86.7)	15(100.0)
1999	0(0.0)	0(0.0)	21(100.0)	21(100.0)
2000	0(0.0)	0(0.0)	31(100.0)	31(100.0)
2001	0(0.0)	0(0.0)	20(100.0)	20(100.0)
2002	1(4.3)	0(0.0)	22(95.7)	23(100.0)
2003	1(4.3)	0(0.0)	22(95.7)	23(100.0)
2004	1(3.8)	1(3.8)	24(92.3)	26(100.0)
2005	0(0.0)	0(0.0)	18(100.0)	18(100.0)
2006	0(0.0)	0(0.0)	21(100.0)	21(100.0)
2007	1(4.2)	0(0.0)	23(95.8)	24(100.0)
2008	2(4.4)	0(0.0)	43(95.6)	45(100.0)
2009	2(6.5)	0(0.0)	29(93.5)	31(100.0)
2010	1(3.2)	0(0.0)	30(96.8)	31(100.0)
총계	11(3.2)	1(0.3)	332(96.5)	344(100.0)

편수는 9편에서 15편정도로 게재되어 약간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최근 2년(2009, 2010년)에는 10편내 외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저자수와 연구기관수에서는 창간초기에는 단독저자의 단독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공동연구, 다기관연구가 비교적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타 학회지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였다.[2, 6, 7]

연구설계 및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동물 또는 세포실험의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36.9%로 가장 많아 역학 및 임상연구의 방법론을 채택한 논문이 9.0%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단면조사, 환자군연구, 환자-대조군연구, 전후비교 등의 임상연구의 연구방법이 명확한 논문만을 역학 및 임상연구로 분류하였기에 그 수가 비교적 적게 조사된 것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역학 및 임상연구 분야가 현재로는 연구가 부족한 분야라고 보인다.

타 학회지[2-7]의 경우를 관찰하여 보면,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 이외에 논문의 종류에 대한 분류가 따로 시행된 경우가 많으며, 아예 원저(original article)만을 대상으로 한 예[2]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각 학회지의 논문 투고 규정에서 논문의 종류를 원저,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 단신보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대한예방한의학회지의 논문 투고규정에서의 원고종류는 이와 약간 달라 실험, 원저, 임상 및 증례보고, 편집위원에서 위촉한 종설로 분류하여 실험에 대한 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예방한의학회지의 경우 대부분의 논문이 원저에 해당하고, 편집장의 요청에 의한 종설과 증례보고 등은 극히 소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연구주제에 대한 대분류에서는 보건의료관

리 관련주제와 한의약치료효능에 대한 주제가 창간호 이후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각각 28.5%, 25.3%를 차지하여 전체 논문주제의 과반을 상회하였다. 비교적 취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야로는 역학 및 통계분야(17편 4.9%), 양생학 분야(25편 7.3%)로 두 주제 모두 예방한의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간과되어진 점이 없지 않다.

물론, 양생학의 경우에는 개발된 측정도구가 많지 않고, 보건의료관리분야의 건강증진사업이나 건강관련행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비율일 수 있겠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양생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학문적 성과와 연구자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학회지 게재 논문편수에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소주제에 있어서도 보건의료관리와 독성학 분야를 제외하면 게재된 논문의 소주제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분야와 같이 양・한방예방의학교재에서 벗어난 소주제도 적지 않았다. 이 중에서 교재와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예방한의학회지의 분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의료윤리(의료와 사회)와 같은 소주제는 현재 교재의 분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대한예방한의학회지의 성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고, 대체의료에 대한 내용도 크게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한예방한의학회 투고규정에 논문의 주제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으나,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서 학회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한・양방 예방의학의 기초이론 정립, 한방의료의 공중보건의료 참여방안, 한방의료정책 및 제도, 한약물의 독성과 안전성, 한약재의 면역조절 및 기전연구 등이 있고, 학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성에서 역학과 통계, 한의의료관리, 환경 및 산업의학, 독성학, 건강관리 및 증진, 미병・전염병학, 운동・기공, 공공의료사업, 법・제도 정책 등의 분과가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주제에서 기타로 분류된 진단기기의 평가나 한의학적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기초의학적인 실험논문 등은 학회지의 성격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예방한의학은 타 전문한의학 분야와 비교하여 그 범위가 넓은 것은 인정하지만, 연구재단 등재지의 위상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 논문투고규정에 학회의 연구주제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여 투고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며, 더불어 예방한의학의 범위를 규정하고 교재의 내용을 현실적인 변화에 따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용된 언어에 대한 분석에서는 영문 3.2%, 중문 0.1%로 매우 낮아 외국언어의 논문투고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한한방내과학회지는 1년간 투고된 논문을 분석하여 실험논문과 종설 및 임상증례 보고 간의 게재율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임상연구논문의 활성화와 외부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5]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서는 3년간 발표된 논문의 방법론과 통계처리기법을 분석하여 통계기법의 질제고와 다양한 분석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원전학회지에서도 3년간의 게재논문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공동연구의 독려와 비전공자의 참여, 주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함 주장하는 등[7] 여러 한의학 전문학회지가 각 학회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게재 논문의 경향이 단독연구에서 공동연구로 변해가는 추이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주제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학회지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에서는 예방한의학회지가 좀 더 노력해야할 여지가 있었다.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동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고, 저자 1인에 의해 논문

분류가 이루어진 것, 질적 연구가 시도되지 못한 점 등이 한계였음을 밝히며, 향후 논문 편수가 누적되면 적절한 시기에 질적 분석 등이 시도되어 학회지의 수준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V. 결 론

창간호로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의 논문 344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게재논문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저자수는 3인의 경우가 24.1%로 가장 많았고, 연구기관수는 2기관인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다.

총 344편중 실험논문이 127편(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이 다루어진 대주제로는 보건의료관리가 98편(28.5%)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취약하였던 분야로는 양생학과 역학 및 통계분야였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축적을 통해 예방한의학의 각 분야의 확장과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8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참고문헌

1. 대한예방한의학회 회칙. 1997년 12월 6일 제정(2008년 4월 26일 개정)
2. 김춘배, 이정애, 박종구, 손석준. 예방의학회지를 중심으로 한 예방의학 연구의 동향과 연관련 논문의 질적 메타분석. 예방의학회지. 1999 ; 32(2)113-122
3. 김정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연혁 및 논문 경향 분석에 대한 고찰.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 ; 21(1) : 103-114
4. 박경숙, 최은희, 류언나, 황윤영, 정혜경, 안양희, 백훈정, 임난영, 이은옥. 대한 류마티스 건강 학회지 논문분석을 통한 연구경향 분석 - 창간호부터 2003년도까지 -. 류마티스건강학회지. 2004 ; 11(1) : 18-30
5. 고성규.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경향성.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2 : 23(1) ; 65-72
6. 고미미, 강병갑, 강경원, 박세욱, 김보영, 김정철, 최선미. 최근 3년간 발표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논문의 방법론 및 통계처리기법에 관한 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 22(1) : 189-193
7. 방정균. 최근 3년간 원전학회지 논문의 경향성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 17(1) : 137-144
8.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재 편찬위원회. 예방의학 및 보건학. 계축문화사. 2011
9.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재 편찬위원회. 양생학. 계축문화사. 2007
10. 이학식. SPSS18.0 매뉴얼. 집현재. 2011